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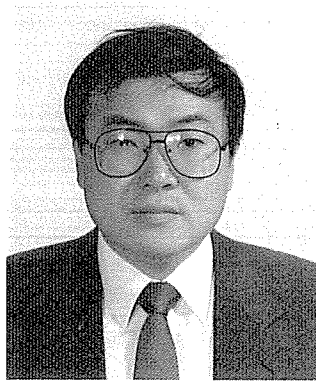


宇宙민족의 부활

박 석 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 천문정보팀장〉

미국 유학시절 내가 조교를 맡고 있던 이란학생이 한국사람들의 '공통정신'이 무어나고 물어서 필자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던 일이 기억난다. 내가 되문자 이란의 대학생들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오늘에 재현하자는 문제를 토의할 때는 북받친 울음까지 보인다는 예를 들었다. 즉 이란사람들의(아마 전 중동인들의) 공통정신은 '페르시아 영광의 부활'이라는 답변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에게 이러한 것이 과연 있는가 하고 전부터 가끔 고민해오던 내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필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정신', '홍익인간이념', '국민교육헌장', '3.1정신', '충무정신', '도산정신' 등 어느 것 하나에도 투철하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필자만의 문제면 오죽 좋으랴만 주위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 민족의 공통정신은 '외래품 애용정신', '체면주의'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조에 빠지기도 했다.

유학 후 현실로 내게 다가온 과학기술계는 과연 민족적 중대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더욱 의심스러웠다. 누가 영어를 잘 발음하느냐가 마치 실력의 척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풍토가 한심하기만 하였다. '과학기술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하기는 우리 사회가 광고 끝마다 '본토발음'을 삽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국제성이 강한 과학기술계야 오죽하랴 넘기지만, 국제화가 마치 말할 때 영어 섞어쓰기나 한자사용 등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러한 시점에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공통정신 하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주민족'이라는 것이다.

천체 한두 개를 상징으로 이용하여 만든 국기는 꽤 많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의 국기는 태양을 상징한다. 하지만 태극기는 세계의 수많은 국기중 유일하게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바로 전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우주와 하늘을 사랑하고 숭상

해온 민족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애국가에도 '하늘님'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우주를 관측하여 왔으며 침성대, 서운관, 관상감 등의 독립된 왕립 천문기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가정에서조차 가능하면 남편이 파란 베개를 아내의 빨간 베개를 사용하는 우리를 우주민족이라고 일컬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여기에 좋은 예가 된다. 필자가 다녀 본 세계 어떤 나라도 화장실을 남성용은 파란색, 여성용은 빨간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는 중국까지 항해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말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우리나라가 천문학이 무척 발달하였었다는 말과 동등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천문학의 발달 없이 중국까지 항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안에 밤낚시를 가더라도 나침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방향을 알아내기가 힘들다. 고대 서양에서 지중해의 상권을 페니키아가 장악하였던 이유도 바로 페니키아 천문학 때문이었다. 항해술과 천문학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중의 하나가 바로 해군천문대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자명해진다. 그 해군천문대에서는 지금도 세계 역사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민족적 전통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은 칠정산과 같은 민족과학을 장영실로 하여금 완성시키도록 하여 중국을 통하여 입수된 천문우주과학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천문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폐해를 시정하고 조선왕조의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하늘이 내린 제왕이 하늘의 일을 몰라서야 말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시행된 이 일은 민족의 자긍심 차원에서 본다면 한글창제 못지않은 대왕의 치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우주민족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몰락할 수 있을지 신기할 정도이다. 피서지의 맑고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어른들의 오락을 시작하기 전 자녀들에게 직녀성과 전우성을 가리켜 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극장에서 접하게 되는 우주에 관한 SF 영화들의 대부분도 외국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우리가 외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감상하는 자체에는 물론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인이 주인공이라면 어쩐지 어울릴 것 같지 않게 느낄 정도로 우리의 정신이 세뇌되어 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왜 한국어린이들은 ET를 만나면 안되는 것일까.

우리 역사상 독립된 천문기관이 없는 때는 일제치하와 지금이라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의 혼을 슬프게 한다. 이는 물론 천문학이 국민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한심한 일이다. '천문대라고 하나 있으면 됐지, 그게 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이 일반인들은 물론 과학기술계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가 둥글건, 네모모양이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식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제 우주천문학분야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조원을 들여 수십억평년 떨어진 우주까지 살펴보기 위하여 허블망원경을 설치하였고 또 그것이 작동에 이상이 있다고 스페이스셔틀을 보내 수리까지 마쳤다. 심지어 그 실황을 몇 시간 동안 생중계한 TV사도 있었다. 천문학이 단순히 국민의 자존심이나 만족시키는 학문이라면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아돌길래 이러한 '한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독자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아니한가.

중성자성이나 블랙홀과 같은 고에너지 천체들은 21세기 새로운 과학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천체들이 관여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인간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값을 갖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이 핵사찰을 받느니, 강대국이 어찌니 하는 말들 뒤에는 한마디로 $E=mc^2$ 공식 하나밖에 없다. 새로운 '공식'을 먼저 찾아내는 국가가 21세기에 군림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에 선진국들은 이미 60년대부터 X-선 관측위성 같은 우주망원경을 올리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말로 할 일이 크게 준 CIA같은 세계의 정보기관들도 국의 차원에서 이런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헛수로 거의 30년 뒤인 90년대 들어서도 이런 계획조차 전혀 없는 우리 현실이 너무 초라하기만 하다.

작년 4월 천문대가 주최한 '별의 축제' 여의도 행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이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 또한 너무 인상깊은 것이었다. 독자의 자녀중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싶어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을까? 자녀가 밤하늘에 별이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 부모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밤하늘의 수천개 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사고의 깊이가 같을 수 있겠는가. 이는 특히 최근 대두되는 청소년 정서 문제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더구나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별은 환경교육에도 더없이 좋은 산 교재인 것이다. 어찌 이 문제가 교육부에서나 할 일이지 과학기술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참가했던 일반인들과 보도진들은 천문대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하여 이런 과학문화사업도 꼭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천문대가 이제 정신차렸다고 질책한 고마운 분도 계셨다. 하지만 우리 천문대의 이런 과학문화사업조차 인식부족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주시대 이 우주민족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은 과연 올 것인가.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가 우주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57]